

기사 작성자를 위한 평가 리포트

기사 개요

제목: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

출처: 한국일보, 2025.02.04

기자: 최동순

기사 유형: 해설 기사/사회

내용 요약: 외국인보호소 수용 근거 법률의 효력 상실이 임박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특히 일부 강력범죄 전과자의 석방 가능성 제기하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평가

최동순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민 주도의 CR 프로젝트를 통해 귀하의 기사를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언론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함께 더 나은 저널리즘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자님의 기사는 입법 공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의 주요 문제점

1. 독자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편향된 프레임

기자님의 기사는 제목과 핵심 사례 선택에서 독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라는 제목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보호소에 있는 소수의 극단적 사례를 일반화하여 전체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범죄인 수용자들의 존재를 회피시키고 외국인 혐오를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④항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제10조 ①항의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위험성을 판단할 핵심 맥락 부재

기사에서는 위험성을 강조하셨지만, 독자가 그 위험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에서 "현재 전국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하루 평균 1,600~1,800명이다"라고 쓰셨는데, 이를 중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이들의 정확한 비율이나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빠지면서 소수의 강력범죄자 사례가 전체 수용자의 특성인 것처럼 과장되어 보입니다.

이는 언론윤리현장 제1조가 강조하는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

제목과 프레임에 대한 개선 방안

기자님께서는 제목을 "외국인보호소법 개정 난항, 입법 공백 사태 오나"와 같이 쟁점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기사 서두에서 '대부분은 비범죄인이나 일부 강력범죄자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맥락 보강을 위한 방안

법무부 등 취재원을 통해 현재 수용 인원 중 형사범의 비율, 그중에서도 강력범죄자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여 기사에 보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용된 1,800여 명 중 형사범은 0명이며, 이 중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X명으로 파악됐다"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돋는 결정적 정보가 될 것입니다.

결론

최동순 기자님의 기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프레임의 균형성, 맥락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독자의 신뢰를 얻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